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성환 신임이사장 취임



“한국 교회 살리는 파워플랜트 될 터”

조경대 이사장 퇴임

학교법인 종암중앙학원 이사장 이·취임예배가 지난달 1일 오후 2시 종암중앙교회 본당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진왕수 이사(종암중앙교회 장로)의 사회로 기도에 개신총회 부총회장 박찬권 목사의 기도와 개신총회 총회장인 박용목사가 요한복음 20:19-31의 말씀을 근거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을 전하였다. 박용목사는 “하나님의 목적은 소명이고, 이는 학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새로운 이사장과 함께, 이사들이 사명을 갖고 직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사장 임명식과 주립대학교 재정학과를 졸업하고 낙스(Knox)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를 졸업하고 비블리컬(Biblical)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으로 신학석사(ThM)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종암중앙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이어 조경대 명예이사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고 조경대 명예이사장의 이임사가 있었다. 이임사를 통해 “본인은 평생을 바쳐 학교를 위해 헌신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강조했다. 또한 제86회, 제88회 개혁 총회에서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종암중앙교회로 노력하여 교육부 인가를 얻어 줄 것을 요청했고 총회는 적극 협력하고 돕기로 했지만 모든 사람이 떠나는 아픔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여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협력하며 학생들을 보내주고 후원금을 보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경대 명예이사장이 신임이사장 조성환목사에게 임명패와 선물을 증정하고 조성환목사가 취임사를 전하였다. 조성환목사는 취임사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이사장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난 30여 년 동안 약 4천 5백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키며,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보수, 개혁신학의 산실로 한국 교회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총장님들, 이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무엇보다도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조경대 명예이사장님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한 후 향후 비전을 설명하였다.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단순히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교회를 살리는 파워플랜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수님들의 학문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좋은 교수님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축사가 이어졌다. 총신대 전 부총장인 서철원교수는 축사에서 “빛나는 한국 교회의 신학적 전통이 있어왔지만 이제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상황속에서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보수신학을 지키고 이 시대를 섬기는 참된 목회자를 세우는 정통개혁신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였다. 이어 송실대 전 총장 박정식 교수는 스승으로서 옆에서 지켜본 조성환목사의 인물됨됨이를 칭찬하며 앞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고 축사 하였다. 이어 송동교회 담임목사인 정기수 목사가 축사의 말을 전하였고 마지막으로 신계문 국회의원이



축사의 말을 전하였다. 특별찬양에 계봉원교수와 조성환 총장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손석태 명예총장이 축도 함으로서 이사장 이·취임예배가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는 종암중앙교회 성도들과 내,외빈 등 5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개신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취임을 축하하고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취임사 및 취임사 사진 3면에

목사·장로기도회 개최

이달 28일, 종암중앙교회서



총회가 출범 후 첫 번째 목사 장로 기도회가 2015년 4월 28일(화) 오후 2시 종암중앙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도회는 감사로 손석태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을 모시고 “우리 함께 감시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총회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하며 총회의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총회와 함께 하고 개신총회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하여 기도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회를 바라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은총회원들이 하나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총회가 아낌차게 출발했으나 이제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총회원들이 함께 하고 개신총회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하여 기도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답지

총회 세례교인 헌금 주입을 통해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답지하고 있다. 총회 총무 조영식목사는 총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전국 총회 산하의 교회에 요청하면서 각 노회별로 상납금과 총회 세례교인 헌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총회 세례교인 헌금 주입을 지킨 교회들이 총회에 헌금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종암중앙교회(담임목사 조성환)가 세례교인 헌금으로 500만원을 보냈고 경기1노회 산하 교회와 순직교회(담임목사 박용) 등 총회의 교회들이 많은 금액을 총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총회에 대한 어려움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 고무적이라고 하며 “현재 총회의 재정상황이 많이 어렵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노회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고 조직되지 않은 관계로 노회에서 보내는 총회 상회비가 많이 적은 상황이다. 이런 때 총회의 교회들이 세례교인 헌금 등이 절실하다. 이에 각 지교회는 총회 세례교인 헌금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총회를 돕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부활 하셨네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사설

부활신앙을 회복하자!

지난 4.5일 주일 전국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위에서 고난가운데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때에 다시 부활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결코 영노릇하지 못한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상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독교회만의 우월성을 세상에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약자편에도 서지 못하고 정의감에 불타있지도 않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였다. 이러한 슬픔을 위로하고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갈수록 개신교의 성장은 멈추고 감소추세에 있다. 오히려 천주교보다 사회적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세상속에서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는 유약한 교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의 한국교회와 주역이 되어야 할 다음세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교회는 다시한번 그리스도의 첫사람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을 넘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회복하는 능력은 바로 부활신앙의 회복에 있음을 생각하고 다시 깨어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 바란다

총회는 임원회를 통해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합동위원회는 또 모임을 갖고 합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4.15일에는 개혁 송전동측과 첫 상견례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합동에 원직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개혁총회의 흑역사는 바로 분열과 분리의 역사이다. 교권의 다툼에 신학교의 주도권 다툼에 또는 임원이나 자리다툼에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이러한 흑역사를 마감하고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총회의 비전을 가지고 개신총회를 설립하였다. 개신총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총회로 설립되었다. 과거에 헤어졌던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다. 그러나 개신총회의 설립 정신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합동을 추진하거나 합동을 위한 합동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이어져 온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상처만 남는 합동이나 교권을 잡기 위한 합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과거의 옛 형제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되고 하나의 신학아래 모이고 사심없이 총회를 섬기고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중심이 되는 총회를 이루어야 한다. 개신총회는 기존의 개혁총회의 헌법과는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목사정년제 폐지, 70세 공직정년제 실시, 여성안수, 총회 준목고시 폐지, 총회 총대 자격은 임직 3년 된 목사, 장로, 개신대학원 대학교 후원주임등 개혁적이고 짧고 참신한 제도를 만들고 새롭게 개혁하였다. 합동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정신과 제도를 잘 설명하고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잘 해나기를 바란다. 조금 어렵더라도 개신총회의 설립정신을 잘 지켜내고 합동을 신중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총회 준목지원확인서 15명 발급

목사자격고시 절차

당회(교회)추천 → 노회 목사후보생고시 → 개신대학원대학교 목회학석사과정 졸업 → 1년의 준목 인턴과정 → 노회 목사고시 → 목사임직

개정된 목사 자격 절차에 따라 총회는 총15명의 총회 준목 신청서를 접수하여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준목지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과거 본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문서를 점검하여 목사후보생으로 당회(교회)의 추천을 받아 노회가 실시하는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후 개신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수학

하여 졸업한 후 총회가 실시하는 준목고시(목사자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당해년도 총회의 보고후 1년이 지난 후 보통 가을 노회때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임직을 받아야 목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개혁된 헌법을 통하여 총회가 실시하는 목사 자격고시를 따로 거치지 않고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준목의 자격을 부여하고 1년의 인턴십을

거친 후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목사로 임직하도록 하였다. 개신대학원대학교 3년의 목회학석사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충분히 목사로서의 자격이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공부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1년동안 목회 현장에서 목회실습적인 면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노회에서 목사자격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목사로서의 소명과 준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회 준목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목회자들은 총회 준목고시의 부담을 벗겨져 새로운 제도에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총회가 진정 개혁되고 좋은 모습을 갖게 된것에 대하여 개신대학원대학교를 나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총회임원회는 제4차 임원회 개최... 합동위원회 구성

총회임원회는 제4차 임원회를 갖고 총회 현안을 처리하였다. 2015.3.12(목) 오전 9시 총회 임원회는 국가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회장 박용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총회장은 서기 하금식목사로 기도케 한 후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총회원 10명중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총무의 경과보고를 통해 목포노회 및 전북동노회가 총회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주경하며 개혁이라는 명칭을 존속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또한 9월 100회 총회를 위하여 영입위원회는 존속하기로 하고 결의하였다.

제5차 임원회는 2015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총회 사무실에서 총회장 박용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금번 임원회 안건으로는 교단 합동위원회의 건, 목사장로기도회건, 하기교역자 수양회의 건을 다루었다. 총무는 보고를 통해 현재 몇몇 교단으로부터 합동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원칙적으로 옛 형제들과 합동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합동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기 위

해 접촉중에 있음을 밝히며 적극적인 합동위원회 활동이 요구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1차 합동위원회가 4.7(화) 총회 사무실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두번째 안건으로 목사 장로기도회의 건은 이미 날자와 장소가 결정되었으므로 감사와 진행순서를 정책위원회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결의하였다. 세번째 안건으로 하기교역자 수양회의 건은 총무로부터 현재 적절한 날짜를 고민하고 있으며 장소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호텔이 일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좀더 시간

을 두고 논의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4.7(화)에 열린 합동위원회에서는 합동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박용목사, 조성환목사, 김순모목사, 나건용목사, 백영강목사, 하금식목사가 선임되었다. 이어 총무로부터 합동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신중하게 접촉하기로 하였다. 현재 접촉 대상 총회는 개혁 송전동측(총회장 안성삼목사)으로서 4.15(수) 흥은동 힐튼호텔 오전11시에 양교단 합동위원회의 상견례를 갖고 합동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개혁 전주측(총회장 류현목목사)과도 불발에서 계속 접촉하면서 양교단의 합동을 모색하는 가운데 있다. 한편 양측의 교단 합동에 있어서는 교단 신학교의 문제와 교단 명칭의 문제들이 주요 문제로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7(화)에 열린 총회 개혁정책위원회(구 기획위원회)에서는 목사장로기도회 감사로 손석태 총장으로 정하고 준비하기로 했다. 1부(2시-3시)는 예배와 기도회, 2부(3:30-4:30)는 특별강의, 3부(4:30-5:30)는 총회 현안보고와 기도회, 식사(5:30-6:30)순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임원회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경기1노회 목사 후보생고시 및 장로고시 실시



지난 2015.3.30(월) 경기1노회는 중앙중앙교회에서 목사 후보생고시를 실시하였다. 총 16명이 목사 후보생

고시에 응시하였고 3명은 전도사고시에 응시하였다. 장로고시는 5명이 응시하였다.

새롭게 총회를 시작한 후 나름 걱정도 있었지만 개신대학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많은 참여로 진행되었다. 목사 후보생들은 면접시험을 통해 다시한번 소명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굳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경기1노회 노회장 김순모목사는 "이렇게 좋은 목사 후보생들이 노회 목사후보생고시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1노회는 2015.4.13(월) - 4.14(화)까지 중앙중앙교회당에서 경기1노회를 진행한다.

중앙중앙교회 춘계 부흥회 개최

강사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훈목사

중앙중앙교회는 오는 14(화), 15(수), 16(목) 저녁과 새벽에 춘계 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미국 시카고한인교회 서장권목사이다.

또한 27(월), 28(화), 29(수) 저녁 7시 30분에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사진)를 모시고 부흥회를 개최한다. 교회 관계자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개최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와 지역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신신문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총회장 : 박 용 발행인 : 조성환 편집국장 : 고태성 인쇄인 : 이정자

등록번호 : 서울 다 10958 / 등록일 : 2015년 3월 5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604호 / 대표전화 : 02)3674-7008 팩 스 : 02)3674-7010



예수 부활 하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직한교회



담임목사 박 용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철야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9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3층 / ☎ 02)571-0304 / H.P 010-4210-5932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



담임목사 박 찬 권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 1부 : 오전 8시, 2부 11시, 3부 오후 2시
- 주일오후 : 오후 7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9시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15길 9 / ☎ 02)936-7622 / H.P 010-4710-0923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성환 이사장 취임예배 개최

개신대학원대학교
조성환 신임이사장 취임사



조성환 신임 이사장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개신대학원대학교의 이사장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 동안 약 4천 5백명의 졸업생을 배출시키며,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보수, 개혁신학의 산실로 한국 교회사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총장님들, 이사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개신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조경대 명예 이사장님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어떻게 학교를 섬기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개신대학원대학교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신학의 '파워플랜트'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개혁신학연구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단순히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한

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고급 신학 사상이 만들어지고 가르쳐지는 대학원대학입니다. 비인간 시절 수백명의 신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몰려든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곳에서 가르친 석학 교수님들과 그분들의 신학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종암중앙학원 이사회는 이를 위해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님들의 학문활동을 적극 후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좋은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가 막스 디몬트는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에서 유대인들이 사라졌던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의 사상에 찾았습니다. 그만큼 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사상이 가지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지금 큰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 교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올바른 신학의 회복입니다. 저와 이사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성경에 입각한 개혁신학, 공교회적 전통에 선 개혁신학, 교회 현장을 살리는 개혁신학을 세우는데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둘째, 보다 나은 문학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창조적 생각은 여백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사가 보다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개신대학원대학교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외부의 유관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총회들과의 협력 관계를 개척하고, 가능하다면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와 함께 걸음 해 온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지금 더 큰 도약을 위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과도에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 진통이 새 역사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부활 하셨네



대한예수교 **종암중앙교회**
장로회 **JONGAM JUNGANG PRESBYTERIAN CHURCH**

섬기시는 분들

- 원로목사 조경대
- 담임목사 조성환
- 부목사 안재인 고태성 나경훈
- 협동목사 조성현 조재천 노원석 김구원 배종열
- 교육목사 황금주
- 여전도사 김형자 안호숙
- 교육전도사 김아론 류태욱
- 원로장로 진병도 김정유 황호연
- 시무장로 진왕수 최삼봉 한광옥 조동일 김영수
- 하영선 김찬중 김동균 김형주 조은철
- 협동장로 김공대



조성환 담임목사

개혁주의 성경신학 ②



손석태
철학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이러한 주장을 한 학자들로는 Harvard 대학의 F.M. Cross, Gordon Cornwell의 교수였던 Gordon P. Hugenberger, 그리고 한국 개신대학원대의 손석태 등인데, St. Vincent Seminary의 Scott Hahn이라는 교수는 미국 Yale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된 그의 책 "Kinship by Covenant"에서 이 세 사람이 바로 성경의 계약사상의 기원을 밝히는 "Foundational Work" 곧 기초작업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⁴⁾

그러하여 성경에 나타난 계약사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대 근동의 종주 관계를 맺는 국제 조약, Suzerain-Vassal Treaty이나 그보다 더 고대적인 친족 맺기의 결혼이나 입양 등의 두 전통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개혁주의에서 구속사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는 주제를 역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맥을 "계약"이라고 보는 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혹은 언약이라는 개념이 성경의 중심 사상을 다 담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결국 그 주제의 중심성, 일관성, 포용성, 적용성 등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언약이라는 개념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필자는 "관계" (Relationship)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등이 서로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관계 상대자를 선택하게 되고, 이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맺고, 이 관계를 깨트릴 때에는 일정한 벌칙이 있고, 또 깨어진 관계를 되살리는 회복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관계라는 면에서 볼 때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계약신학에서 선택이나 회복의 개념이 미약합니다. 또한 계약신학을 가르치고,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선택-언약-교제-과약-회복이라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관계"라는 주제에 포함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 아담을 그의 대리통치자로 선택하시어 그와 언약관계를 맺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담의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흔히 결혼이나 입양과 같은 은유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시내산 언약, 가나안 정착,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빌로니아 포로생활, 그리고 회복이 그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곧 여호와의 선택-언약-교제-과약-회복 등과 병행되고 일치하며, 성경은 이 역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결혼이나 입양관계로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를 신랑,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라 비유하여, 이 둘 사이의 약혼, 결혼, 결혼생활, 이혼, 그리고 재혼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가장 밀접하고 인격적인 결혼 관계를 통하여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약 혹은 언약이라는 협소한 틀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경의 다른 교리들과 잘 맞고, 적용성이 뛰어난 "관계" 개념을 그 중심 주제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의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이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계약이나 언약이라는 개념은 너무 깊이 숨어 있어서 흔히들이 개념이 있는 줄도 모른다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부,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목사와 성도, 상사와 부하, 대통령과 국민, 국가와 국가 등 모든 것이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특히 우리 개혁주의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의 해석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4.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 관계신학

성경의 중심 주제로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입재 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법정적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적 언약관계보다 더 밀접하고, 인격적이고, 심오하고 내면적이며, 신비한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실존적으로 기술하는 말씀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와 오심과 머무심의 가시적인 상징, 곧 하나님의 영광과 입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입재를 통하여

여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가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이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1. 창세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율리브산에서 잡히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위한 제사장직 기도 가운데 그가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소서." (요 17:5) 예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17장 21절,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들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보면 교제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는 연합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같은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는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를 제자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제의 하나님이고, 교제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흠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심으로 심상은 생명이 결합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4.2. 창조의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그의 대리통치인으로 세우시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제의 상대자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과 교통하시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바르고 질서 있는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주신 일종의 길잡이이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룩하고 인격적이며 질서와 예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만 그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또한 에덴 동산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오염되고 그 결과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시대에 홍수 심판을 내리시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창 6:3)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3.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모두 비틀어 놓아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구속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약, 교제, 과약, 회복으로 이어져 나가는 데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3.1.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될 것이다." (출 6:7)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공식은 흔히 "언약공식" (Covenant Formula) 라고 불리는 데, 선택의 문맥에서도 함께 사용되어 "선택공식" (Election Formula) 이라고도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앞으로 계시록까지 "관계"라는 주제의 성경의 맥을 이끌어가는 일종의 길잡이 (Instruction Key) 노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흔히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왕과 백성 등의 은유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과의 이 신비한 관계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은유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선택은 마치 입양이나 결혼, 혹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받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 4:22)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예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그의 맏아들로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31:9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2:26에 보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따라 쫓은 사건을 가리켜 "약혼 때의 사랑"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하여 정혼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입양이나 결혼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의 배우자나 상대자를 뽑는 선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3.2.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그 첫 번째 목적지가 시내 산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는 이 산에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관계, 곧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 약정을 피로 맺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5-6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제의하시며, 이스라엘이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들을 그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피차 생명을 담보로하는 언약을 맺으셨다 (출 24:1-11). 이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를 바라보며 먹고 마셨다. 여호와와 언약적 교제와 사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출 24: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에게 거룩한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주시려고 그들 산 위로 부르셨다. 산 위에는 여호와와 모세만 있게 된 것이다. 이 때의 모습을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 구름이 육일 동안 산을 덮었는데 제 칠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으며,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가 밤낮 사십일을 머물렀다." (출 24:15-18)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덮힌 시내산에 타오르는 불처럼 임하시고 모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시내 산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렘 31:32). 출 19:5의 "소유의 백성" (hgs <u>)라는 말도 아내로서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와 하나님 사이의 결혼, 입양, 나아가서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⁵⁾

주 석

- 4) Scott Hahn, Kinship by Covenant: Canonical Approach to the Fulfillment of God's Saving Promise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9, 341n25. "Covenant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Some Current Research (1994-2004)" CBR 3.2(2005)263-292, 266, 270. 손석태 (Seock-Tae Sohn)의 논문은 KI BARUH HU: Ancient Near Eastern, Biblical, Judaic Studies in Honor of Baruch Levine (eds. R. Chazan, W.W. Hallo, L.H. Schiffman [Winona Lake: Eisenbrauns, 1999])에 수록된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The Origin and Background of Covenant Formula"이다.
- 5) 손석태 『목회를 위한 구약신학』서문: CLC, 2006.



예수 부활 하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전교회



담임목사 하 금 식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 1부 : 1부 오전 9시 30분,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 오후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1부 오후 4시, 2부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하가2길 29-41 / ☎ 063)274-7732 / H.P 010-6651-77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양교회



담임목사 김 진 일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9시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96길 82 / ☎ 02)917-2004 / H.P 010-4415-0675

개혁신학을 말한다 ②



서철원 교수
조직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Confessio Fidei Westminsteriensis, 1647) 11장 1조에 칭의에 관해서 이렇게 선언하였다. 하나님이 효력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다. 그들 안에 의를 주입해서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므로 또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받으심으로; 그러나 그들 안에서 행해진 어떤것에 의해서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 믿음 행위를 그들에게 의로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함과 순종을 그들에게 의로 전가하신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는다. 종교개혁은 완전히 일치하였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종교개혁교회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났다. 칼빈은 이신칭의 교리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의 근본사상들을 성경적으로 확립하여 완전한 신학체계를 구성하고 교회의 조직과 생활을 성경대로 완전하게 정립하였다. 곧 개혁교회와 개혁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하였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 전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말한다. 사람이 선행으로 자책을 갖추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정권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선행을 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로마교회의 가르침은 성경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종교개혁은 일치하게 선언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는다. 사람이 선행과 공로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능히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무패하고 무능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였다. 사람이 무슨 공로를 이룰 것인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데 무슨 선행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보탬 것인가?

개혁신학의 수립 후에 로마교회는 루터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와 개혁교회를 가장 어려운 강적으로 지목하고 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였다. 첫째로 1546년부터 1563년까지 트레نت 공회를 열어 이신칭의 교리와 종교개혁을 박멸하기로 하였다.

먼저 자유의지가 남아있음을 강조하였다. 여섯 번째 회기: Sessio sexta, caput 1. 이단의 범죄로 각 사람이 무효성을 잃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그 능력에서 약화되었고 굽혀졌지만 결코 지워진 것이 아니다.

제 5장; 칭의의 시작은 앞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유래된다.

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살리며 듣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선행하는 은혜에 동의하고 합동해서 자신을 자기의 칭의로 돌이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이 자신을 칭의로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은 칭의가 오직 믿음으로 곧 은혜로만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제 7장; 준비에 의가 따라온다. 의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고 속사람을 성화하고 경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법정적 칭의를 반대한 것이다. 그리고 믿음만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사랑의 선행이 칭의에 필수적이라고 선언한다.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무익하다고 선언하였다. 10장에서는 믿음은 선행과 합동하여 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아고보서 2:24을 인용하여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11장에서는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여 믿음만으로 자신에게 아첨해서 믿음만으로 상속자가 되고 믿음만으로 상속을 얻을 것이라고 현상을 가지만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

트레نت 공회의 결정과 선언에 의하면 믿음만은 구원 얻음 곧 의롭다함을 받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이 말하는 신뢰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칭의의 준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믿음에 선행을 더함이 칭의에 필수적이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얻은 의는 생소한 의여서 내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곧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사랑의 선행들이 칭의에 필수적이다.

트레نت 공회의 결정으로 로물라 이그나치우스(1491-1556)는 예수회를 조직하여 (1535-1544) 이단인 개신교회를 박멸하기로 하였다. 트레نت공회의가 종교개혁을 이단과 분리파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박멸할 교리적 근거를 얻은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반대와 반박은 개혁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회란의 알미니우스가 1603년 레이덴 대학의 조직 신학 교수가 되어 가르치던 중 1608년 5개조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받아 알미니안 추종자들 곧 항론파들이 1610년 5개조를 공식신앙의 표준으로 발표하였다.

1조;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고칠 수 없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두셨다는 것이다. 전적 부패와 무조건적 선택을 부정하였다.

하나님이 영일불변한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라 그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들을 죄와 진노 아래 두기로 하시되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거나 자들로 정죄하셨다.

주께서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곧 만민 구원을 주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 모두를 위해서 구속과 죄 용서를 획득하셨다.

3조의 핵심은 죄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 할 것을 말한다. 알미니우스가 발표한 5개조에는 이것이 명시되어있다.

구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반역 가운데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는 참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거나 원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둔다 참으로 선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다.

4조의 핵심;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의 시작일 뿐이다. 증생한 사람은 앞서 오는 은혜나 듣는 은혜나 뒤따라오는 은혜와 합동하는 은혜 없이는 선을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구원내재의 역사하는 양식에 관해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다.

5조의 핵심은 이것이다.

한번 은혜 입은 자가 믿음에서 탈락할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성도의 견인을 부정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은 사랑과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들을 도우신다. 그러나 시험에 들 때 그들이 그의 도움을 원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도움을 손길을 펴신다. 그러나 게을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버리고 현재 약한 세상으로 돌아가지 거룩한 교리에서 돌아서고 선한 양심을 잃고 은혜를 상실하게 될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는 성경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르칠 수 없다고 하였다.

알미니우스와 알미니안파의 5개조가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칼빈의 신학의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은혜의 주권적 역사 대신에 자유의지를 앞세우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음에 선행을 더해야 되는 것을 주장하였다.

알미니안파의 신학을 반박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 1618-19년에 돌트에 개혁과 총회를 소집하였다. 구라과 전역에서 개혁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알미니안 5개조를 정죄하고 칼빈주의 5개조를 확정하였다. 그것은 알미니안파의 5개조에 대응해서 작성되었다. 그것이 tulip 으로 요약 표현된 5개조이다.

1조는 전적타락을 말하는데 고칠 수 없는 사람들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고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2조는 무조건적 선택 교리로 믿음만한 사람들 혹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은 구원 되지 못한다는 주장

을 반박한 것이다.

3조는 제한된 속죄 교리인데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알미니안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4조는 불가항력적 은혜교리로서 은혜를 향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은혜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끝내 구원하신다는 가르침이다.

5조는 성도의 견인교리로 믿다가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돌트총회의 결정에 반대되는 전개가 이루어짐을 설명하였다.

1619년 돌트 개혁과 총회에서 알미니안 주장이 완전히 물리쳐졌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가 영국교회에 전파되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영국 왕실과 연합하여 교회 위에 왕이 수장권을 갖는다는 주장을 옹호하여 고교회를 형성하였다.

알미니안신학이 18세기 감리회를 세운 존 웨슬리에게 전파되었다.

웨슬리는 칼빈주의를 성화생활에 제일 큰 대적으로 설정하였다.

구원얻는 일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은혜 곧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일반은혜와 합동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선행이 구원 얻음에 필수적이다. 먼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회개의 정도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으므로 무조건적인 예정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은혜가 오기 전에 믿기로 작정해야 한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성화 곧 선한 행위들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선행을 행할 뿐 아니라 성화로 의롭게 되어야 칭의를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의롭게 되므로 칭의를 받는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의 구원을 능히 이룰 수 있고 선행을 하여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곧 완전성화를 이루어야 그 성화에 근거해서 칭의를 받는다.

웨슬리에 의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웨슬리의 가르침은 로마교회의 교리보다 더 과격하게 자연주의 방식으로 나아갔다. 로마교회는 구원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선행을 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물론 은혜로 믿음이 시작됨을 말하였다. 웨슬리는 일반은혜와 합동하여 믿음과 구원 얻음을 시작한다. 내가 선행을 해서 거룩해지고 죄를 제거하므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 감리회가 세워져 합법적인 종교개혁의 후예로 자처하였다. 종교개혁 후 2세기 정도가 지나서 웨슬리는 로마교회의 구원도리보다 더 심한 자연주의적인 구원론을 정립하였다. 19세기에 찰스 피니는 감리회의 완전성화주장을 열렬하게 받아들였다. 장로교회의 상당수가 감리회의 완전주의로 넘어갔다.

영국교회에서 알미니안 신학이 변질하여 감리회란 이름 아래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학을 가진 교회에서도 구원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 완전한 구원은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사상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퍼져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오순절 부흥운동은 알미니안 웨슬리 신학을 견지하는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들을 이행해야 곧 완전성화를 이루어야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바른 도리로 정착하였다.

성령세례 받는 공식은 20세기 내내 전 세계교회를 지배하였고, 한국교회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고백으로 받는다는 가르침을 펼 때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느냐고 반응하게 되었다.

오순절 운동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조건들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감리회의 완전성화 주장을 조금 변형한 것일 뿐이다. 완전성화를 이루어 자격을 갖추어야 성령을 정취한다. 알미니안 감리회신학이 20세기 전 세계교회를 지배하였다.

조건들을 잘 이행하면 성령세례를 청구하여 받되 방언이 함께 동반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성경학에서 구원은 믿음과 선행을 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복음주의 계통에서 널리 퍼졌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E. P. Sanders가 미국 듀크 대학으로 옮겨와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열렬하게 전파하였다.

바울은 본래 율법을 흠없이 지켰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음이란 새로운 길을 내시므로 그 믿음의 길로 넘어간 것일 뿐이다.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 믿음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이 한국의 신학교들에 널리 퍼져있다.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를 구원종교가 되게 하느냐 자력종교가 되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가 되게 하는 근본이다.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교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근본진리인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뿐이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다른 주장이나 가르침은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배도가 거의 원료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교황을 전 세계 종교의 교황으로 삼기 위해서 전통적인 교리를 다 버리고 완전히 현대화하였다. 바티칸이 섬기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루시퍼임을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가 확증하였다. 루시퍼어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Lucifer, Christus est Filius Tuus).

1965년 제2 바티칸 공회의가 종교다원주의를 교회의 교리로 확정하였다. 그 영향을 받아 1967년 인도에서 열린 WCC 제 3 차 총회는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한 신학으로 확정하고 계속 추진하기로 정하였다.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회의 교단들이 전통적인 신앙과 신학을 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정당한 믿음의 길로 확신하고 따라가고 있다.

세상은 그러하더라도 한국교회와 기독교로 은혜의 구원종교로 남으려면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 길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현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교회는 한 세대 후에는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임 규 철**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7시
-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21 / ☎ 02)3295-2504 / H.P 010-5205-358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목사 **모 경 출**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83번길 6 / ☎ 061)278-7870 / H.P 010-7687-7004

한기총, 이단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시작



2015.4.10자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각교단이 전문위원을 파송함에 따라 이단 검증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일보 기사 내용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류광수목사와 박윤식 목사의 이단해제에 대한 재심 검증에 7개 주요 교단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기총 본연 사태를 야기한 이단 문제가 해결돼 탈퇴 교단들이 다시 가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이단검증특위·위원장 오관석 목사)와 주요 교단에 따르면 대원에 수교장로회(예장) 합동·통합·백

석,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 등 7개 교단이 특위에 검증위원을 파송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검증위원 파송 요청 공문을 보낸 9개 교단 중 예장고신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2곳이 빠졌다. 구자우 예장고신 사무총장은 "교단마다 이단 규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교회연합기관이 신학적인 사안을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우리 교단 입장"이라고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참여 교단 가운데 한기총 회원 교단은 2곳(기하성여의도순복음, 그교협)이며, 탈퇴 내지 비가입 교단은 4곳(예장합동·통합·백석, 기감, 행정보류 교단 1곳(기침)이다. 이단검증특위 관계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등 한

국교회의 정통교단들이 전문위원을 파송하기로 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참 교단에 대해서도 검증위원 파송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7개 참여 교단에 따르면 서영석 협성대 교수(기감), 김호성 국제신학연구원장(기하성여의도순복음), 장계은 서울기독교대 교수(그교협), 김형목 서울성서교회 목사(기침), 장동민 백석대 교수(백석) 등이 검증위원으로 나선다. 예장합동·통합 등은 검증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증은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이전에 마무리 예정이다. 검증 작업은 검증위원들의 1·2차 연구 및 내부 토론, 3차 공개 토론회에 이어 최종 보고서 작성·보고·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상세한 검증 로드맵은 오는 11일 열리는 이단검증특위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미 사망한 박

목사에 대한 검증 여부도 다룬다. 이단검증특위 관계자는 "'사랑한 자에 대한 검증이 실효가 있느냐'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위원을 파송한 교단들은 검증 작업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홍정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단 문제 해결이 필수 선결과제"라며 "일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단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승 예장백석 제1부총회장은 "한기총이 하나로 뭉치느냐, 깨지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며 검증 작업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기감 관계자는 "이영훈 대표회장이 한기총을 이끌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 같다.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박재찬 유영대 박지훈 김이영 기자

개신신문 정식 등록 절차 완료

개신신문은 2015.3.5 서울시에서, 다1095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서 신문등록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정식으로 발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신신문은 이번 호까지 총 3차의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는데 교단이 새롭게 출범하자마자 바로 교단 직영신문을 발간하게 되었고 충실한 내용을 잘 반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문 운영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이 놓여 있기에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신문은 인쇄비와 우편발송비 최소한의 사무 행정비만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살비만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전국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신신문 발간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개신대학원대학교 2014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신학박사, 석사학사, 목회학사, 신학석사, 신학박사, 목회박사 등 총 6명 졸업

목사장로기도회 다음달 28일 개최

총회 총회 부회, 총회총회총회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제47회 국가 조찬기도회 총회 임원 참석

제47회 국가 조찬기도회가 "통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2015.3.12(목)오전 7:00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4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통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는 분단 70주년을 이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 하자는 목소리가 컸다.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는 설교에서 "평화와 자유, 정의와 진리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믿고, 통일을 위한 기도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이 우리 민족에게까지 성취되기를 바란다."며, "이 나라의 흠어진 백성이 하나되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70년의 엑스더스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 직후 인사말을 전한 박근혜 대통령은 "성경에서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만에 돌아온 것처럼 올해는 한반도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사회가 갈등과 분열의 직결을 극복해나면



새로운 축복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며, "기독교선교 13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에는 대통령과 국가발전, 경제번영과 민족화합,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

다.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는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7개 나라 해외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선 조찬기도회를 끝으로 모든 공식 순서를 마친다.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는 국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한편 총회에서는 조경대 개신대 명예이사장, 조성환 개신대 이사장, 박용 총회장 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였다.

총회 홈페이지 오픈 (www.rpck.co.kr)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HOME | 회원가입 | 로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총회소개 | 총회조직 | 총회본부안내 | 총회자료실 | 커뮤니티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세종고 개척한 총회 | 회해고회합하는 총회 | 연구하고 교육하는 총회 |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협력하는 총회 | 민족복음화와 복음세계화에 헌신하는 총회

총회창립선언문

역사의 강령성을 새삼스럽게 재확인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개신신문

창간호 / 2015.03.3

NOTICE

제1회 목사장로기도회 11-09-24 10:30

총회임원회(3월2차) 13-09-24 09:30

대한예수교장로회 개신총회 홈페이지 오픈하였다.

홈페이지 주소로는 www.rpck.co.kr이다. 개신총회의 홈페이지가 정식 오픈됨으로서 개신총회가 홍보적인 면에서 좋은 도구를 갖게 되었다.

총회장은 전국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개신총회를 잘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하였다. 홈페이지는 현대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총회 홈페이지는 총회소개, 총회조직, 총회본부안내, 총회자료실, 커뮤니티의 구성으로 되어있고 여러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회 본부에서는 개신총회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총회임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하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부활 하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교회**

담임목사 김 순 모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30분
- 주일 1부 : 오전 7시
- 주일 2부 : 오전 11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전 9시 30분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 나길 38
☎ 02) 429-0927, 3426-0549 / HP 010-3532-0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암교회**

담임목사 백 영 강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오전 5시
- 주일오전 오전 11시
- 수요일예배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오후 9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64-22
HP 010-8810-9182

대한예수교 장로회 **희망의교회**

담임목사 나 건 용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주중매일 : 오후 4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4길 36
HP 010-7686-7004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석교회**

담임목사 조 영 식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예배 : 1부 오전 9시, 2부 11시, 3부 오후 1시 30분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 유·초등부 : 오전 10시
- 중·고·대학부 : 오후 1시 30분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38길 7
☎ 02) 997-8717 / HP 010-5184-019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정교회**

담임목사 정 현 옥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오전 5시
- 주일오전 오전 11시
- 주일오후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오후 8시
- 금요일예배 오후 8시
- 유·초등부 오전 9시
- 중·고등부 오전 9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318-18
☎ 02) 942-7197 / HP 010-6616-7197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성화교회**

담임목사 박 만 수

예 배 안 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30분
- 유·초등부 :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장위로 26길 17-24
☎ 02) 911-4108 / HP 010-5295-4865



개신대학원대학교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소식

개교기념 세미나 다음달 12일 열린다

배창돈 교수 '목회를 말한다' 주제로 특강



개신대학원대학교 개교기념 세미나 "목회를 말한다"가 5월 12일(화) 오전 10:30분에 개신대학원대학교 7층 대에 배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길을 바라보며, 개신대학원대학교가 한국교회 부흥에 더 기여할 수 있는 학교로의 큰 발전과 성장 단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소망하며, 함께하여 기도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목 받는 개신대학원대학교 학위과정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재교육이 필요한 이들, 일반 사역자들을 위해 설교주해 방법을 터득하는 성경신학 석사 및 박사과정, 각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익혀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이론과 현장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으로 목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기를 양성하는 상담심리학, 코칭학, 사회복지학, 기독교교육학 과정이 있다.



2015학년도, 1학기 개강

이번 학기에도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로 전진할시다.

1) 설교주해를 위한 성경신학 석사 및 박사
하나님의 부름 받은 곳에서 성경으로 재충전하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이들, 그리고 성경을 배우려는 일반 사역자들을 위해 효과적은 설교주해 방법을 터득하고 신학적으로 성경본문을 주해하는 전문 학위과정이다.

2) 사도, 평신도를 위한 상담, 코칭, 사회복지, 기독교교육 석사 및 박사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싶은 일반인, 평신도, 목회자역 가운데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론과 기술을 익혀 전문적 상담영역에서 사역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과정이다.

코칭
코칭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론과 현장의 연계를 통해 실제적인 측면으로 융합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코치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3) 직장인을 위한 이간 목회학석사
영성과 지성, 인성을 겸비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평신도로 전문적인 사역을 원하거나 신학 전면에 걸친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직장에 다니는 평신도를 위한 이간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교직원 동정
* 조성현 총장
2월 22일(목)에 개신대학원대학교를 관사실에서 식, 박사 졸업자 63명에게 헌 화를 수여하고 헌사를 하였다.

김주원 교수 / 구약신학
지난 10월 18일 목요일에 개신대학원대학교 10-11월, 조이스 교수 초청으로 수원교대(전)의 이 박사(박)를 초청, 비블리칼 아카데미, 기독교방송 성경학원 등에서 (김주원교수의 구약신학)을 출간, CBS 신학원 12월분에서 11월에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014년 9월 26-27일 신학교(김주원)를 연재하였다.

배창돈 교수 / 신약신학
본교에 근무하기 전 몇 년 동안 목회자들과 함께 일했던 것을 회고하면서 2014년 9월 26-27일 '설교의 날'을 펼치며, (서울: C.I.C)를 발행하였다. 또한 2015년 1월 26-27일 신학교(김주원)를 관사실에서 1회(2014년 9월 26-27일) 졸업생들에게 '배창돈 교수의 신학이야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노윤석 교수 / 실천신학
지난 11월 9일(일)에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성경적십자학회(회장 장정숙)의 학술세미나에서 최영준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 주제는 '성경성서와 다문화사회의 이해'로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29일(토)에는 영성상담연구소에서 열린 제 60차 콜로키움에 참여하였다.

구정욱 교수 / 실천신학(전도학)
본교 전도학교수로 임명 받아 이번 1학기부터 본교 학생들에게 실천신학(전도학) 강의를 시작한다. 구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본교 전신인 개혁신학연구원을 졸업하였으며, Calva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전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구 교수는 지난 2014년 9월 26일 서울신학교(전) 전도학연구소 7회 정기세미나에서 '전도학'을 위한 강연으로서의 다문화교회: 민족종교를 위한 전도학'을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22일에는 '21세기 한국교회의 전도, 어떻게 가야 할까?'란 주제로 새세대에(가)에 주회하고 한국교회(100주년 기념)에서 열린 2014 새세대에(가)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에서 '공동체를 통한 전도 사역과 평가'를 발표하고 한국교회 전도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 개혁편지 봄호
"베드로의 순종" (누 5장 1-11절)
총장 조 성 현 박사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신을 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께로 통합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느냐와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아들 딸들을 다 잃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잃고라도 취하신 자도 잃고라도 오니 이보다 더 나은 환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멘(12)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죽어 버렸습니다. 오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보통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시몬 베드로는 정말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도와 고장이름을 배웠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아 그리고 동업하는 세베대의 아들들 아고사와 요한도 권은 아무런 죄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죄악을 범 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를 하고, 목자들이 모이면 목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모이면 고기잡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인생에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가나나를 회당에서 영접한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동생 사이에서 무슨 감정이 있었습니까? 당신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나는 당신의 가족을 분합니다." 라고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악령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하라" 그러자 악령은 그 말씀에 당장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은 악한 권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화를 받고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8:18). 지금 우리 주와 안드레아, 심지어 안드레아도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고통 받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와 넘쳐나는 시대적 상황으로는 더욱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지고 권면합니다. (엡 6:10)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대항하여 설 수 있고 육에 대한 것의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영의 열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골 2:15).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사건 이후, 예수님은 시몬의 활동적인 개척사역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리사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속지에서 조금 멀리서 배에 있어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했지만 허탕만 치고 그물을 버리고 개척사역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같은 배로 나가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내리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짐승기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기존성이 결여 있는 문제였습니다. 둘째, 그때는 고기잡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깊은 밤에 잡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은 비가 한 줄도 안 떨어지는데 우산을 꺼라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부활 하셨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담당목사 장대수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10시
○ 어린이예배 : 오전 9시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5-4 유림프라자5층
HP 010-6325-3916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말씀교회
담당목사 배상태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성경공부 : 오전 10시
○ 어린이예배 : 오전 9시
○ 중·고등부 : 오전 11시
대구시 동구 화랑로 25길 25
HP 010-4110-3604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낙원교회
담당목사 서승주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6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오후 3시 30분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 금요일예배 : 오후 7시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5
☎ 02)6326-3217 / HP 010-3218-2170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동산교회
담당목사 서만성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8시 30분
전남 여수시 둔덕길 26
HP 010-5720-182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담당목사 정대성
예배안내
○ 새벽예배 : 오전 5시
○ 주일오전 : 오전 11시
○ 주일오후 : 오후 2시
○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 금요일예배 : 오후 9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신로 200번길 66 한빛하이존 5층
HP 010-6418-3488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안암교회
담당목사 최승범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금요기도회 :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24길 55 4층 (ESF)
HP 010-2651-9738

“함께 갑시다”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에 전국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모십니다

강사 : 손석태 명예총장(개신대학원대학교)
일시 : 2015년 4월 28일(화) 오후 2:00
장소 : 종암 중앙교회

회비 : 2만원
문의 : 총회 사무국 ((3674-7008,7009)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신총회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

개신대학원대학교의 교훈은 '살리는 신학, 살아있는 목회'입니다. 본교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추구하며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살리는 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목회'를 실현하는 일꾼을 양성합니다.

우리 학교는 목회학석사(M.div) 이외에
특성화된 여러 학위과정을 모집합니다.

설교주해를 위한
성경신학 석사 및 박사

사모, 평신도를 위한 상담, 코칭,
사회복지, 기독교교육 석사 및 박사

직장인을 위한 야간 목회학 석사



개신대학원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전 형	1 차	2 차	3 차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6. 8(월) ~ 6. 29(월)	7. 1(수) ~ 7. 20(월)	7. 23(목) ~ 8. 18(화)
면접 및 입학시험	6. 30(화) 9:30am	7. 21(화) 9:30am	8. 19(수) 9:30am
합격자 발표	7. 2(목)	7. 23(목)	8. 21(금)

NAVER



개신대학원대학교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142-810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235(미아동 203-8)
235 Dobong-Ro, Gangbuk-Gu, Seoul, 142-810 Korea
Tel 02)945-0910 /Fax 02)945-0143 /www.rts.ac.kr